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 박희정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  
상하수도 분야 발전을 통해 이룩하겠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에서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으로 비유될 수 있는 상수도과 하수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과 함께 화려한 봄을 맞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지난 2월 신입 상하수도국장으로 부임한 박희정 국장을 만나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상하수도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터뷰 요청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국은 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선 약속드립니다.

그간 환경부의 상하수도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깨끗한 수도물 공급체계와 위생적인 하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농어촌 급수 보급률이 1998년 22.8%에서 2004년 35.2%로 향상되었고,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1998년 66%에서 2004년에는 81.4%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물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인 1일 급수량이 395리터(1998)에서 365리터(2004)로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물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수도물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와 합치', '평가와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물 정보 제공, 시민참여 확대,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시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이용 체계를 더욱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은 생명의 근원일 수밖에 없는 물의 속성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은 기존의 취수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직선적인 이용체계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인 순환성을 근간으로 경제시스템 내에서 적극적인 순환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한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자연에서 취수하는 소극적 순환체계에서 탈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전인 인간사회 내에서의 순환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자원의 경제적인 활용을 통해 환경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여 물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보다 촉진시키는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완료되는 제1차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에 이어 제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자체의 물수요관리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분야를 물산업의 주요 분야로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 포럼이나 Eco-Star Project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적 특성과 환경용량을 반영하여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환경용량을 고려한 먹는 샘물 개발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산 생수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물산업이 확장일로에 있으며, 물이 석유와 같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환경부의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용수공급, 하·폐수 처리 등을 위한 시설·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물산업은 앞으로 석유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규모로 볼 때, 2003년 830억원에서 2015년에는 1,600억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산업의 핵심 분야인 상하수도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상하수도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참여가 확대되는 등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Veolia, Suez와 같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거대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물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인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하수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및 관련 공기업이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 기업군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요금결정, 수질 등 관리·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기능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분야의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제이용', '고도처리' 등 신규시장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 정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수돗물 수질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을 개정(2005년 12월 29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유재산인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검사 및 급수관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쾌한 맛과 냄새가 없는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이유로 31.4%가 냄새와 물맛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류염소 농도를 계절별로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인 약 256만명이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25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시설 자체가 매우 열악하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일부 취수원은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상수도 공급가능지역에 위치한 8천개 소규모 수도시설을 2014년까지 일반상수도로 전환하고,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노후된 약 4천3백개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6,4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유도하고, 마을상수도 시범사업을 통해 IT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가꾸는 것은 비단 관(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시민, 환경단체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환경보전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구조상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원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처 고려치 못하는 측면을 시민·사회단체가 보완하는 기능도 있으며, 정부행정의 관행과 경직성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시민·환경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환경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중고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등 시민단체와 정부가 합심해서 현안 환경문제의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 환경단체는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발족한지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협회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협회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협회는 수도사업자(지자체), 기자재 생산기업 및 종사자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정확히 전달하는 가교기능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협회 스스로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시설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개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물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시장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 제공하는 정보수집·전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의 물산업 전시회이자,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인 WATER KOREA 행사 등을 활성화시켜 국내 물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협회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부는 협회의 동반자로서 우리나라 상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